

“열린 자세와 호기심을 가져라”

암벽등반·사진·파도타기·도자기 등
개성있는 취미생활로 차별화시켜야

평키지 사마의 대입가이드

대입지원에 있어서 독특한 지원자로 보이게 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학부모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녀가 남하고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는 관심이 요구된다.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잘하는지를 찾아 그것을 발전시켜 훗날 대입지원에서 개성 있는 지원자로 보일 수 있도록 키워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녀를 특별한 지원자로 보이게 하여야 한다는 조언을 일반적으로 듣고 있었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미 많이 활용한 전략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조언을 한다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도 대학교 지원에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에게 꼭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바로 열린 자세를 고수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성공적으로 역대 연봉을 받는 데에 있어서 사진 기술이 그다지 안정적이거나 매력적인 수

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대입 사정관들은 사진사의 평균 임금 따위에는 관심을 덜 가지게 마련이다. 학생 본인이 열정적이고 자신의 환경이나 공동체에 흥미롭고 이익이 되는 자신만의 취미가 있을 경우 입학 사정관들은 지극히 평범한 악기 연주 및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취미로 가지고 있는 아시안 학생들보다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도자기 포트폴리오가 있는 아시안 남학생을 본 적이 있는가? 과연 언제 좀 더 많은 아시안 학생들이 코미디 클럽에 가입하여 그저 공부만 하고 사회성이 약한 학생들이라는 편견을 깨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언제 암벽등반, 파도타기 하는 사람, 그리고 모험가들이 입학 사정관들로 하여금 전형적인 인기 종목인 양궁, 골프 등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아시안 학생들이 넘쳐나는 꿈으로부터 깨어나게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이러한 활동들이 지원과 관련

하여 더는 효용성이 없거나 이제는 버려야 할 카드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필자가 말하려는 바는 이러한 활동들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다른 학생들 역시 이를 알고 자신의 지원서에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일 특정한 몇몇 활동을 취미로 삼는다는 것 때문에 유명한 대학교에 합격하였다는 학생의 소식이 들려올 경우, 학부모들은 이를 축하해주길 바란다. 하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해가 바뀌면 그 특별하게 여겼던 몇몇 활동이 이제 더는 이전처럼 특이하고 매력적인 조건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학생들을 컨설팅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로 하여금 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일깨워주고 학부모들로 하여금 열린 자세를 지향하게 함으로써 가장 좋은 일, 즉 자신의 자녀가 가진 있는 그대로의 열정을 찾아주고 자녀를 향한 본인의 바람을 강요하는 것보다 자녀가 가진 꿈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버드 대학이나 기타 다른 최상위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차이를 말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동일하게



SAT 혹은 ACT에서 만점을 받을 수도 있고 저명한 여름 프로그램에서 전부 A를 받았을 수도 있다. 필자는 인터뷰 및 교사들의 추천서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접해 볼 수 있었다. 명문대에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학생들의 경우를 보면, 순수하면서 열정적이고 열린 자세를 가지고 호기심을 보이며 자신만의 세계관을 확립함과 동시에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아주 강하다는 것이다.

모든 학부모가 이러한 특성을 가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학부모는 자녀를 공부시키려고 힘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하지만, 부모들이 자녀에게 꿈에 대한 희망을 북돋아주고 격려해 준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감히 확신해본다. 그들이 반드시 의사, 변호사, 혹은 사업가로 크지 못할 수도 있다. 하

지만, 입학 사정관의 눈에 들어올 수 있는 특별하고 매력있는 한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 동안 이것을 최상의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 준비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진정으로 추구하지 않는 활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도전이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이것을 깨닫고 공립 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카운슬러들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참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평키지 사마
시니어 어드바이저
어드미션 매스터즈